

전북대 - HS그룹, 농생명 기술 교류 '맞손'

친환경 농자재 공동연구 · 기술정보 교류 · 우수인재 양성에도 협력기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농생명 및 식품 산업 연구 등을 위해 이 분야 전문 기업인 HS그룹(대표 유태호)과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4일 오후 2시 전북대 본부 대회의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유태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능성 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를 공동 연구해 개발하고, 농생명 및 식품산업 분야의 연구와 기술정보 등을 교류하기로 했다.

또한 산학 인력교류 등을 통해 농생

명 분야에 특화된 우수인재 양성에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동원 총장은 "우리 지역이 농생명 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힘은 대학과 기업의 긴밀한 협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협약이 양 기관의 경쟁력 향

상은 물론, 우리 지역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나비효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HS그룹은 친환경 유기질비료에 대한 선두적인 기술력을 통해 기업 목표인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농업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자원순환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창의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가 취업 및 진로지도를 위한 산학간담회를 최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했다.

유도청소년국가대표선수단 러시아대표들과 합동훈련

전주에서 하계전지훈련중인 유도청소년국가대표선수들과 합동훈련을 하기 위해 러시아유소년대표선수들이 전주를 방문했다.

한국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회장 이무희)과 우석고등학교(교장 김영관) 초청으로 전주를 방문한 러시아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15명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유도명문사학인 우석고등학교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청소년대표팀 손양복 감독은 "강한 힘을 원천으로 하는 러시아선수들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우리대표선수들이 유럽선수들의 경기운영방식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팀 블라디미르 감독은 "합동 훈련에 참가한 러시아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과 훌륭한 기술들을 많이 배우는 좋은 기회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100회 전국체전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는 전북유소년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훈련장을 방문한 전북교육청 김성동 인성건강과장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학생선수들이 국제 감각을 익히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며 전북교육청에서도 우수한 체육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학교가 지난 14일 교내 5동 대강당에서 제33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언제 어디서나 밝게 빛나는 호원인이 되기를"

호원대,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27개 학부 학사 학위자 109명 배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14일 교내 5동 대강당에서 제33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학부모를 포함한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학부(과) 109명의 학생이 학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위별로는 ▲공학사 7명 ▲경영학사 7명 ▲경찰학사 3명 ▲관광학사 14명 ▲교육학사 7명 ▲문학사 3명 ▲미술학사 1명 ▲미용예술학사 1명 ▲법학사 3명 ▲사회복지학사 5명 ▲소방안전관리학사 2명 ▲심화

컴퓨터·게임공학사 2명 ▲야동복지학사 1명 ▲예술학사 33명 ▲이화사 6명 ▲작업치료학사 1명 ▲체육학사 10명 ▲행정학사 3명 등이다.

또 부이티오리엔(경영학부 4학년, 베트남)학생 등 우즈베키스탄, 중국유학생 2명도 함께 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업성적도 우수한 부이티오리엔 학생은 "처음엔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웠고 고민이 많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 주셨던 학교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덕분에 큰 탈 없이 학교생활을 마무

리 할 수 있었다"며 "학교에서 배운 많은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인재가 되겠다"고 전했다.

강희성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긍정적인 생각은 미래를 바꾸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사회로 나아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졸업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밝게 빛나는 호원인이 되기를 바란다"며 졸업생들의 학위수여를 다시 한 번 축하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과학사랑 한마음 가족 캠프 큰 호응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가족과 함께 과학이야기로 소통하는 과학캠프를 개최했다.

지난 14~15일 1박 2일간 임실청소년수련원에서 제20회 과학사랑 한마음 가족 과학캠프를 운영하고, 가족이 함께 어울려 과학이야기로 공감대

를 형성하며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탐구력과 심미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과학캠프 참가대상은 과학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31가족 147명을 접수순 선별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 체험부스 활동

▲학부모 특강 ▲도전 가족 골든벨 ▲가족과 사랑의 밤 ▲퍼즐 맞추기 ▲가족 구성원 협력 게임 등이다.

캠프에 참가한 우수현 학생(만성초 5)은 "과학은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의 원리와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니 이해하기 쉬웠다. 과학에 새로운 흥미가 생겼다"고 말했다.

진건 학생(장수초 5)은 "그동안 부

모님이 바빠서 같이 지낼 시간이 없었는데 과학캠프에 와서 부모님, 동생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니 즐겁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참석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학사랑 한마음 가족 과학캠프는 전북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과학교사교육연합회가 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 운영하는 캠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정보통신공학과, 진로지도 산학간담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창의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는 취업 및 진로 지도를 위한 산학간담회를 최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했다.

전기정보통신 및 조명 관련 기업 임원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대우건설 김신근 상무와 (주)유셀네트웍스 김구동 대표, (주)이텍 정영일 대표, (주)동도엘엠에스 변재경 대표가 참석했으며, 박대희 교수 주관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취업, 인턴참여, 진로 지도 지원 및 협력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통해 김구동 대표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으며, 업무 처리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영일 대표는 학부 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보고서 및 기획서 작성 등의 경험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산=장은성 기자

또한, 회사가 수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변재경 대표는 LED조명 영업기술 분야에서 현장을 극복하지 못하는 신입사원들을 보면 매우 아쉽다면서 LED 조명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의 지원을 희망했다. 이어 자격증과 맞춤형 전공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한 김신근 상무는 학생들이 무작정 취득하는 자격증보다, 어렵지만 면허가 되는 자격증을 선별하여 취득하도록 지도를 부탁하고, 건축전기설비 분야를 종괄하는 입장에서 대학의 건축전기설비 영역 특성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대희 교수는 "이번 산학간담회가 정보통신공학과 학생들의 인턴 및 취업 지도에 큰 도움과 역할이 기대된다"며, 2학기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전주비전대 - 노사발전재단 전북센터, 업무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최근 비전대 대회의실에서 노사발전재단 전북센터와 교육부 후진학선도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전대 우병훈 기획처장, 노사발전재단 전북센터 김인수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 미취업자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전직지원,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각 기관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전대는 지난 6월 전북지역 유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Ⅲ유형)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을 지원받아 전라북도 지역주민, 미취업자에게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김인수 소장은 "비전대와의 협약을 통하여 양 기관에서



수행하는 제반 업무에 대하여 협력하고 노사발전재단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근로동기부여 및 구직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전대는 현재 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Ⅲ유형) 무료교육 프로그램인 설비보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능사(설비보전, 공유압, 자동차 정비)과정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